

# 장려상

최은서 중학교 3학년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날씨 맑음

많은 아침에 많아서 밥을 먹은 후 바로 어제 읽다만 책을 읽기 시작했다. 30분 정도 책을 읽다가 문득 신문도 읽어보면 어떨까하여 책을 쌓여두고 집에 있던 신문을 꺼내 읽어보았다. 신문은 제대로 읽어본 것이 처음이었던지라 나를 열심히 집중하여 읽었다. 신문엔 여러가지 이야기가 쓰여있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1층 내 눈을 사로잡은 건 다음아닌 '쌍씨' 이야기였다. 읽음은 장마기간이기도 하고 특히나 작년 여름보다 더 답게 느껴져서 두루뭉개 날씨에 관심이 많이 생겼던 참이었다. 마침 잘 됐다하여 장마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내려갔다. 신문에는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장맛비가 내렸다고 쓰여있었고 또한 '장마기간 전국에 내린 평균 강수량은 평년 강수량의 1.3배였다.'라고 쓰여있었다. 이 문장에서 지구난화의 심각성을 느꼈다. 물론 지구난화의 심각성을 느낀 적은 많았다. 변음 장마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데 나는 장마기간이 폭염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때 지구난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신문을 다 읽고 난 후 나는 지구를 위해 환경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로 결정했다. 나의 목표는 '환경 봉사 매번 해! 나, 매일 매일 지역 쓰이기 쓰기'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닌 일주일에 5번씩 '환경을 위한 활동 10가지 이상하기'와 같은 단순한 목표를 정했다. 목표를 너무 크게 세우면 지키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하여 간단하지만 여러번 하면 좋은 활동을 택했다. 목표를 정하고 난 후 늘리 계획을 세웠다. 늘리 계획은 '자전거를 쓰지 않고 걸이대기', 그리고 '음료사먹지 않고 텀블러 쓰기'로 정했다. 마침 약속 때문에 등산장에 가야해서 바쁜 나날 준비를 했다. 등산까지 50원이 걸리기 때문에 바둑하게 움직여야 했다. 터진 때문에 목이 마를 것들 대비해 텀블러에 물을 까지 넣어 출发了. 여승에 50원 등만 걸리만 쉽지 않았지만 등산 중간 텀블러에 있던 물은 다 마셨다. 등산에서 친구와 재회함을 받은 후 집에 갈때 부담을 북돋우려고 잠깐 고민했지만 늘리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다시 걸까지 걷기 시작했다. 더욱이 힘들었지만 '운동도 되고 환경도 지키니 만사안다'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집에 안간 후 늘리 계획을 성취했다는 성취감이 들어서 기분이 더욱 더 좋아졌다. 내일도 꼭 계획을 성취하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2024년 4월 1일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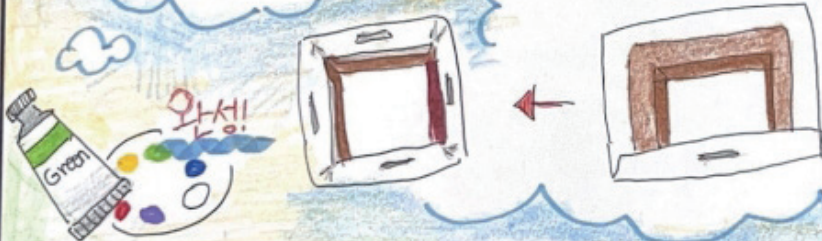
날씨 맑음

늘은 학원 숙제라 방학숙제를 할 점 대신에 갔다. 원래는 아버지를 타고 갈 계획이었으나 어제 방학숙제를 타지 않고 걸었던 것이 생각나 대신까지 걸었다. 도서관에 도착한 후 숙제를 다한 양의 계획을 세우기 전 '자연을 위한다는 책'이라는 환경과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매우 감동스러웠다.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선제목을 부터 매우 흥미로워서 책에 빠져 들어가듯 읽었다. 이 책을 읽고 양의 계획은 지체한다는 의욕이 더욱 더 불태다. 양의 계획은 '업사이클링하기' 그리고 '안 쓰는 플러그 뽑기'로 세웠다. 업사이클링은 한 적이 많아서 매우 자신있었다. 내가 만든 물건은 7천만 안에, 만드는 방법은 어렵하다.

① 프레임과 나무틀 (10x10cm)을 준비한다.



② 다리아로 마스크를 떼운 후, 마스크 위에 나무틀을 대고 타이공 고정한다.



출처: 유튜브 '4국 MAKE ART'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집에서 따라 만들었는데 너무 수월하게 들었다. 앞으로 그림 그릴때 이 방법을 사용해야겠다. 그 다음으로, 두번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집을 구석구석 뒤져 안 쓰는 플러그를 찾았다. 생각보다 안 쓰는 플러그가 너무 많아 빼는데 애를 먹었다. 이런 계획이 아티스트라고 앞으로 플러그는 수시로 뽑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경을 위한 4대 여정은 계속된다...





2024년 8월 3일 토요일

날씨 흐림

열은 서점에 갔다. 원래 서점에는 갈아서 가져 왔으나 가려고 했던 서점이  
시간 40분 거리라서 서점 수 없이 번영사를 타버렸다.

서점에 도착한 후 서점 책, 알뜰 계획을 위한 머그컵을 사고 서점 구경을 했다.

서점에는 시, 과학문학, 만화, 소설, 에세이 등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나는  
책 구경도 할 겸 환경에 관한 책을 슬쩍 읽어보았다. 어제 왔던 기사에서나 똑같이  
책에서든 '멸종위기 동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어제 안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책과 기사를 2번씩이나 보니 2년전에 멸종위기 동물에게 관심이 갔다.

그래서 인터넷에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검색했는데, 나의 생각보다 멸종위기 동물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서점에서 잡은 이동한 후 집에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았다. 나무위키에서는 찾아봤는데, 여기서 멸종위기종은  
사슴지 파리, 인대좀 권자, 송학, 자귀관화라 같이 위험 받는 경우가 많아져서  
생겼다고 한다. 멸종위기종이 생긴 이유의 대부분이 인간인 것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문득내렸다. 16살이나 버린 이 사실을 모르고 찾아보기도 망약던 내가 부끄러워서

열은 '집 근처 구역 쓰레기 줄기' 그리고 '집 대청소하러 문라캐쉬'로 계획을 틀었다.

원래 계획은 '머그컵 사들이기', '행복하고 행복 때 볼 끼'였는데, 멸종위기종에 대해  
찾아보니 내 계획을 생각해보니 더욱 추라해서 계획을 튼 것이다

알뜰 계획은 조금 백전지만 그래도 동물을 생각하며 계획을 완성하니 매우 뿌듯했다...



# 장려상

최은서 중학교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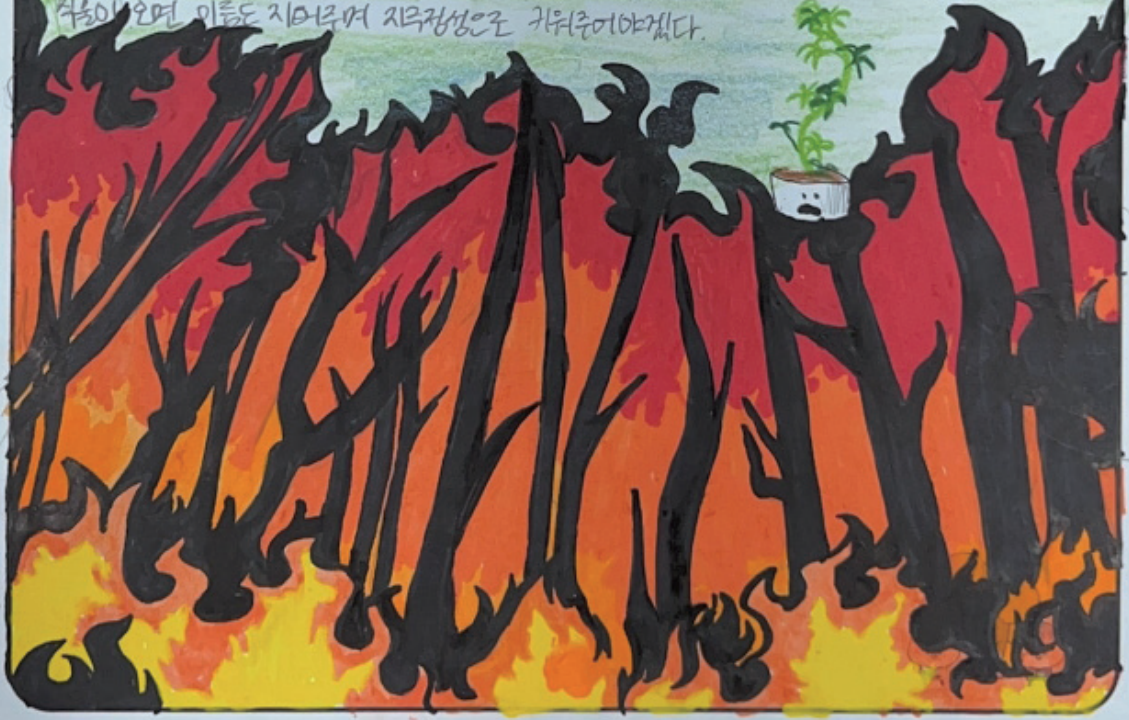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날씨 흐림

오늘 아침에는 완재 책을 읽은 기억이었지만 조금 기사를 읽는 것에 대한 관심이  
 북돋아져서 기사를 읽었다. 조금 환경을 위한 계획 세우기 아이디어가 곱다해서  
 지구온난화에 관한 기사들을 여럿 찾아서 읽었다. 그러다가 '캐나다 산불 연기'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기사에서는 산불 연기가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생각해 보면 산불 연기는 자에게 정말 치명적인 것  
 같다. 나무를 심는 날도 파종하는 마당에 소중한 자원이라 일명 우리 공기청정기인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며 불에 탄다는 것은 자의 양심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인 것 같다. 정작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슬픈 현실인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식물을 키우자'이다.  
 나무를 심기에는 우리집에 정원이 없다. 그렇다고  
 나무심기 형사는 찾기 힘들어서 식물심기는 아이디어는  
 내 친대인의 큰키였다. 식물은 공기정화 식물인 '홍명아자'를  
 텅선했다. 식물을 죽은 후, 식물을 키우기 위해 인터넷에 식물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검색하여 근처 다이소에서 물건을 샀다. 아직 배움은 많지 않았지만 나의 첫 식물이기도  
 하긴 이분야이든 한번 죽어간 양심지라는 걱정한 성격 탓으로 식물을 기다리는 중이다.  
 식물이 어떤 모습도 되어주며 지구정생으로 키워주어야겠다.





2014년 8월 14일 토요일 날씨 비

들은 평상처럼 개학한 뒤 수행평가나 사함에 대한 걱정을 하며 학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종이'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 학원은 시험기간이 되면 시험대비를 위해 학습프린트 몇십, 몇백장을 나누주는 데, 나는 프린트를 받을 때마다

'아래다가 나무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다. 생각해보니 그렇다. 우리 학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몇백개의 학원이 우리 학원처럼 종이를 쓸 텐데, 이런 프린트를 범인 아니라 미세상에 만들어지는 책과 문제집의 개수를 생각하면 나무가 멸종화라도 남을 것 같다. 그래서 '종이 낭비'에 대해 찾아보았다.

인터넷에 쳐보니 '전자도서', '종이 낭비 문제점', '종이 낭비 줄이는 법' 등등 다양했고, 나의 목적은 '종이 줄이기'였으므로 '종이 낭비 줄이는 법'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엄청난 수확은 없었다. 내가 만기엔 다 똑같은 소리였던 것 같다. 그래서 나만의 '종이 낭비 줄이는 법'을 생각해냈다. 그런 바운 공부할 때 종이 대신 전자기기를 쓰는 것이다. 만기엔 찬하지만 생각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다. 나는 몇몇 계획을 세울 때나 단어를 외출 때, 낱새할 때, 끄고있을 때 등 종이를 쓸 때가 많다. 이런 때 종이를 쓰는 것 대신 전자기기에 세로나 공부계획을 쓰고, 단어를 외출 때 종이를 몇장, 몇십장 아끼는 것이다. 아쉽게도 이런 아이디어 밖엔 없지만 앞으로 더 많이 종이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겠다. 대신엔 내 아이디어의 한계를 느끼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앞으로 인터넷도 더 찾아봐야겠다.

